

역사와 삶의 현장에서 빛나는 '눈빛'

눈빛출판사 이규상 사장

눈빛 출판사는 작다. 혼자 기획, 섭외, 교정까지 다 맡아보고 그것도 모자라 데스크 답으로 편집까지 도맡은 1인 다역의 이규상 사장(37)과 편집부 직원 한명, 영업부 직원 한명이 눈빛 출판사 식구의 전부다. 그러나 규모와는 달리 눈빛은 웅골찬 출판사다.

지난 88년 11월 16일 등록해서 올해로 8년차인 이 출판사는 현재까지 60여종의 책을 펴냈다. 대형서점에는 눈빛의 서가가 따로 마련됐고, 사진에 관심이 있거나 사진을 직접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두권 정도는 눈빛에서 펴낸 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눈빛은 이제 명실상부한 사진전문 출판사로 자리를 굳힌 셈이다.

'리얼리즘'을 추구하며

눈빛의 출발은 살롱사진이 판치던 우리 사진풍토와 인식을 쇄신해보겠다는 의욕적인 의지를 지녔던 여균동(영화감독), 정진국(미술평론가), 이영준(혜외 유학중) 등이 합세해 비롯된다. 거름출판사의 유대기 사장이 자본을 대고 이규상 현사장이 실무를 담당했던 눈빛이 처음 펴낸 책은 프랑스인 크리스 마커의 《북녘 사람들》. 50년대 후반의 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낸 이 책은 제 1회 교보문고 북디자인 상 수상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는 달리 상업적으로 참패했다. 1년 만에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은 각기 제 갈길로 갔고 이사장은 혼자 남아 눈빛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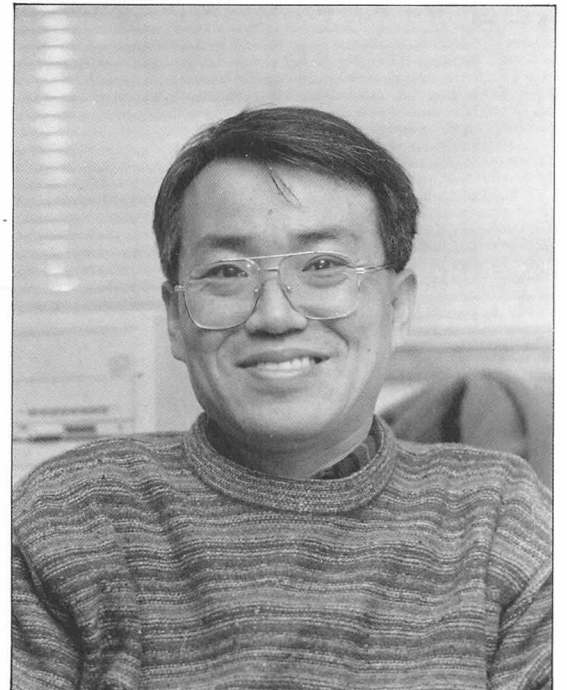
“출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도 했고 주변의 굵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만드는 일이 재미있어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 싶었습니다.”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눈빛이 내는 책의 핵심 이데올로기는 '리얼리즘'이다. 1951년 서울의 모습을 담은 성두경씨의 사진집 《다시 돌아와 본 서울》이나 '여·순 반란사건'의 비극을 카메라에 옮겨 담은 이경모씨의 사진을 여과없이 전채한 《격동기의 현장》이 주는 충격, 이밖에 《마라도》《산골 아이들》《멈춘 학교 달리는 아이들》 등 우리의 역사와 삶의 현장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는 눈빛에서 펴낸 사진집들은 이사장의 사진에 대한 견해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

이밖에 사진이란 장르에 관한 논의가 전문한 우리의 현실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눈빛사진선서' 시리즈가 눈빛 도서목록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사진의 독재》《디큐멘터리 사진론》《말하기의 다른 방법》《20세기 사진사》 등 10여권 있다. 《흑백사진 만들기》《사진촬영의 실제》《존 시스템》《재미있는 사진촬영》 등 사진기술서들은 사진과의 교재로 혹은 일반인이나 사진전문가들의 참고서로 호평을 받고 있다.

“작가든, 역자든, 사진가든 그들의 세계관과 제 가치관이 단 10%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책을 냅니다. 학기말에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출판을 의뢰

“작가든, 역자든, 사진가든 그들의 세계관과 제 가치관이 단 10%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책을 냅니다. 학기말에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출판을 의뢰하는 교수들의 원고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이규상 사장.

하는 교수들의 원고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원고선정은 신중

출판인은 책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원고를 고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사장은 출판의 범위를 만화, 영화, 무용, 미술 등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구한말부터 현재까지의 생활을 사진으로 정리하는 일, 단순한 개론서를 뛰어넘는 전문적인 미술이론서와 독특한 관점의 미술비판서들, 만화에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책들이 그가 앞으로 펴낼 책이다.

인쇄 기술이 따라주지 않아 애써 만든 책을 폐기처분해야 할 때, 용지가 다양하지 않고 제작단가가 다른 책보다 높은 점 등이 어려움이라고 밝히는 이사장은 그러나 초기

에 어림잡아 500명에 불과하던 고정독자가 최근에는 1500명 가량 늘어나 큰 힘이 된다. 있는 독자를 나누어 가진 게 아니라 잠재된 독자를 개발했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과도 많이 늘었으니 출판사 규모도 좀 늘리고 교재 채택을 위한 로비도 좀 하고 그러면 사정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는데 이사장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전문출판사로서는 지금의 규모가 적정하다는 생각이고 스스로 제작의 전 분야를 커버해나가면서 책을 만드는 일이 여간 재미있지 않다. 출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 만큼 책 만들면서 돈 벌 생각에 몰두하거나 다른 데 정신을 팔면 제대로 된 출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박남정 기자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구독료 안내(주 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담 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 271-0494

FAX. (02) 271-0495

출판정보의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출판정보」에서는 약50여종의 일간지에 실린 출판관련 기사를 각 회원사별로 발췌·정리하여 팩스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1 팩스서비스는 1996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 2 중앙일간지 17개와 지방일간지 31개에 실린 모든 기사(신간소개, 작가관련내용, 출판인 및 출판사홍보, 독후감과 서평 등)를 제공합니다.
- 3 신청회원사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새로운 출판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출판인들의 필독서로 읽고 있는 「출판정보」는 출판정보종합매체로서 50개의 일간지와 해외 주요 국 저널의 출판관련기사와 광고, 정책자료, 조사자료 등 발췌정보와 자료도 폭넓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광맥입니다.

발간형식 : 주 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